

이사회-학교측 정면 충돌...또 시끄러운 조선대

학장 등 징계 거부했다며 총장 징계 의결...총장은 “부당한 학사 개입” 교수 6명 보직사퇴서 제출...이사회는 “지시 불이행, 사립학교법 위반”

조선대 이사회가 교원 징계안 제정 요구를 묵살한 책임을 물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제정안 의결’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이사회와 학교 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직무를 게을리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올리라는 지시를 민 총장이 거부하면서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사회 지시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장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 총장 등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이사회가 부당하게 학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 반발하고 있다.

3일 조선대와 이사회 등에 따르면 양측 갈등이 시작된 배경에는 공과대학과 미래사회융합대학 일부 교수들의 일탈이 있었다. 공과대학 A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6학기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수시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앞두고 있다.

미래사회융합대학 B 교수는 2021년 4월 국책지원인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과 관련한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나을 앞두고 교수들(6명)의 항의성 보직 사표를 주도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이사회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해당 단과대학장 등의 감독 책임 등을 지적하며 민 총장에게 징계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상신 등 교원 임용 제정권은 총장에게, 교원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학장 등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권한 침해라며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장의 징계 제정은 재량이 아닌 의무이다. 총장이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A 교수는 직무 태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공과대학장은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미래사회융합대학 강사 신분의 교수들이 정교수로의 신분 상승 등을 위해 파업 차원에서 제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비 사업에 탈락, 학교 측에 1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만큼 학장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 지시에 따라 법인사무처가 총장 징계제정안을 올렸고 이사회 의결까지 이뤄지면서 이사장의 징계요구가 있게 되면 징계위가 소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의무적으로 징계가 이뤄져야 하고 위반 시 이사장도 임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총장이 지극히라도 징계가 필요한 학장에 대한 제정안을 올리면 상황은 수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 총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민 총장은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계속 징계를 압박한 것은 부당한 학사 운영 개입이고 총장 권한 침해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 총장은 “학사행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총장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법인은 민립대학 조선대의 민주적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거 어두운 시절에 일부 부패·독재 사학의 법인이사회가 민주 교수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행태를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와 총장 간 대립이 격화되자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취업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등 주요 보직 교수 6명은 지난달 28일 총장에게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보직사표 제출 배경을 두고는 “어찌 됐든 총장이 징계위에 넘겨질 상황에 몰린 것 아니냐. 보직자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 “이사회에 부당한 학사 개입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등 제출자마다 의견은 달랐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외제차 할인” 돈만 가로채 40대 사기범 징역 6년 선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고객에게 접근한 뒤 차량 구매 대금만 가로챈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제를 대부분 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광주 상무지구 모 카페팀 회사 광주지점에서 ‘광주지점 차장’ 명함을 가지고 대출 증개입 활동을 했다. 차량 할인 등 대출 업무 취급 과정에서 끝어다 쓴 사체 등으로 인해 채무가 40억원에 달하고 매일 갚아야 할 이자만 2억원에 육박하자 A씨는 이른바 ‘외제차 돌려막기’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9명 중에는 병원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출고가격보다 10%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 “취득세 등 세금 800만 원을 대납해주겠다”는 A씨의 사기 행각에 넘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호 기자 khh@

“맞는 장면 볼 사람 다 모여” 학폭 광고 막나가는 10대들 SNS에 영상도 유포

광주 여중생 집단폭행 들여다보니

폭행하고 담배불로 지지기도 학생 20여명 모여 구경·방조

여섯서 여중생 한명을 폭행하고 버섯이 영상으로 찍어 퍼트린 ‘광주 여중생 학폭’ 사건 당시, 2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폭행 장면을 구경·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5시께 광주 시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가해 학생들은 폭행에 앞서 SNS 메시지를 이용해 “○○맞는 장면 볼 사람 다 모이라”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퍼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접하고 2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와 피해 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해 학생들은 주먹으로 수 차례 피해 학생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담배불로 신체를 지

지는 일명 ‘담배빵’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은 당시 주변을 지나던 행인과 현장에 있던 일부 학생들의 신고로 발각됐다.

가해 학생들은 “왜 내 남자친구가 어울리냐”, “왜 ○○라며 뒷담화를 했느냐”는 등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학법소년’은 없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을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4명에게 피해 여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캡처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피해 학생 가정을 방문해 상담·치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마치는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모유 수유 권장 캠페인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3일 광주시 북구 에덴병원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동생 구하려다 익사...불어난 계곡 물놀이 주의

태풍이 지나간 뒤 불어난 물로 인해 계곡에서 물놀이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구례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용지동계곡에서 2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A씨는 이날 모친, 10대 여동생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 위해 계곡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여동생이 계곡의 강한 물살에 휩쓸

려 가는 걸 발견하고 동생을 구조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A씨도 급류를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 바위 틈새에 몸이 끼면서 수십분 동안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A씨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계곡이 물놀이 금지 구역은 아니었으나 최근 구례 지역에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계곡 물이 많이 불어나고 사람이 떠내려갈 만큼 물살이 센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16분께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계곡에서도 물놀이 중이던 부자(父子)가 강력한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튜브를 타고 놀던 10대 아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계곡 하류에 설치된 수로관에 빨려들어가자 30대 부친이 구조를 시도했다. 물살이 강해 아들을 수로관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자 부친은 직접 수로관을 통과한 뒤 아들도 통과하도록 유도했다.

부자는 수로관을 통과한 뒤 계곡 한가운데의 수풀을 붙잡고 소방대원들을 기다린 끝에 구조됐다. 이들은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